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21

2020.2.23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오늘의 주요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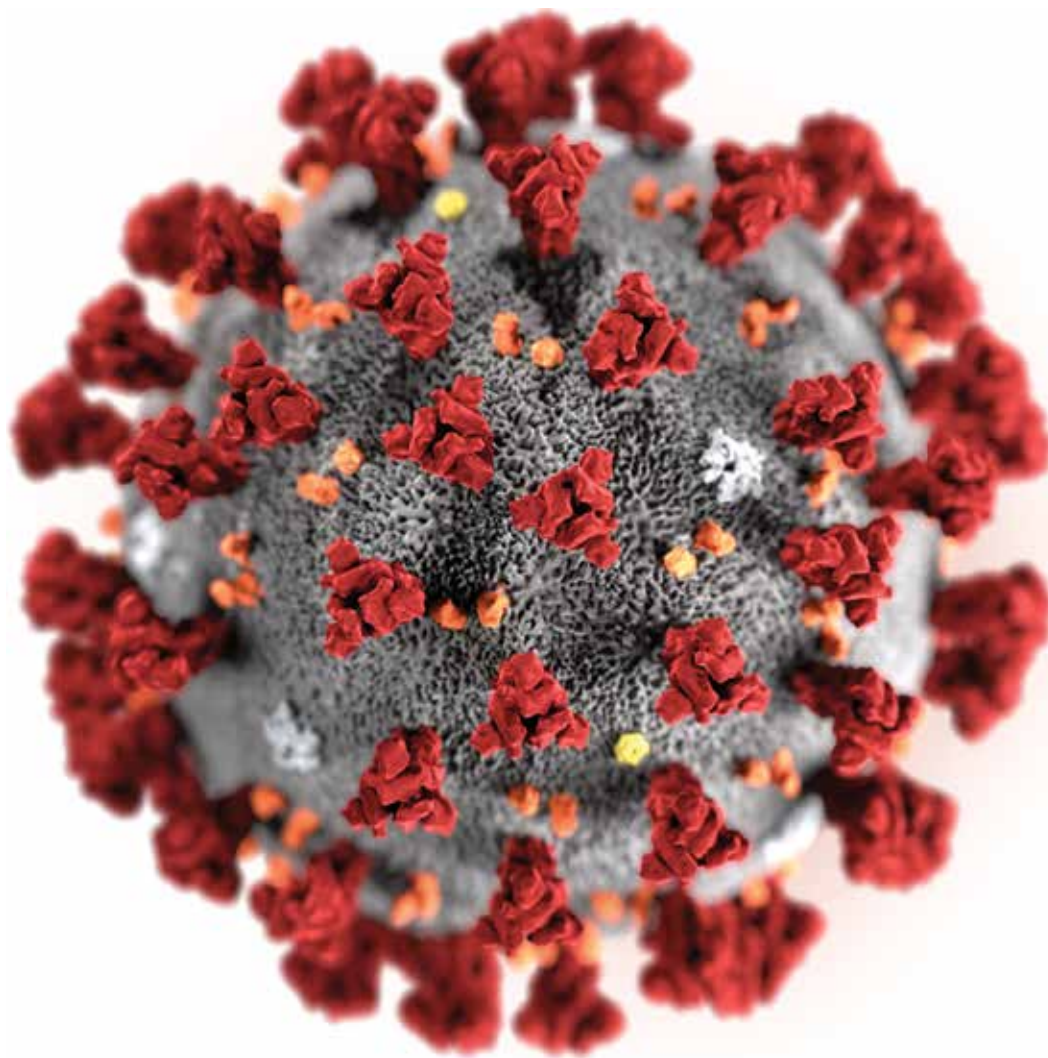
- 2면 함즐함을 특집 “생각하여 보라”
- 3면 교회 소식
- 4면 코로나19 전문의 인터뷰
- 5면 코로나19 칼럼
- 6면 의료선교 소식
- 7면 목회칼럼
- 8면 광고, 알립니다

교회일정

- 2/26(수) 재의 수요일
- 3/1(주일) 사순절1
- 3/4(주일) 교구연합 수요기도회
- 3/8(주일) 사순절2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눈을 크게 뜨고 보자

26일은 ‘재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절기이다. 199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다. 어느 도시에 시력을 잃게 하는 전염병이 창궐해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게 된다. 처음에는 이성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곧 이성을 잃고 약육강식과 같은 세계로 빠져들며 오래지 않아 도시는 정글로 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은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일은 재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일이다. 사탄은 이와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잃도록 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온유와 긍휼을 잊게 하며, 가장 강조하셨던 사랑을 포기하게 한다. 그래서 정죄와 왜곡과 차별과 분열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재난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

> 관련기사 4~5면

함줄함울 2020 캠페인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를 시작합니다

지난 420호에서 <함줄함울>이 올해 “생각하여 보라”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공감을 전해 주셨고 참여의 방법을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특집들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서재”에서는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일상과 관련하여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입니다. 생각, 직업, 소비, 여행, 배움, 시간, 사랑, 믿음, 말씀, 헌금, 평화, 가정, 기도, 거룩, 교회 등을 주제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가능한 저자는 북토크로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공동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책, 또는 주제, 좋은 책 한 구절 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 계획에 넣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책 읽어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연재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는 여러 소망 중 하나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책을 연결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정서적 안정, 상상력, 언어, 흥미와 태도, 집중력, 규칙적인 생활, 자존감, 시간 활용, 위인, 욕심, 결단, 삶의 적용 등을 주제로 매호 연재합니다.

함줄함울

주님의 서재 ❶ 생각을 생각하다

‘생각’이라는 것의 낯설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되는 맥락 없는 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와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온 학문 분야를 ‘철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었다고 말하면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철학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책은 두껍고 글은 길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일상을 통해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책 가운데, 우리가 사볼 수 있는 몇 권을 골랐습니다.

《생각을 생각하다》 이재훈 지음, 두란노, 2017.

온누리교회 담임인 이재훈 목사가 쓴 책. 기독교인의 일상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본질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책이다. 읽어보며 고른 몇몇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책의 소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새것처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래된 것처럼 좋은 교회다.”, “어느 사회든 갈등의 중심에는 정통과 전통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정통은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와 가치이다. 전통은 때로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존속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정통과 전통이 서로 충돌할 때 갈등이 일어난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는 엉뚱한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집단 문화적 위선에 빠지게 된다. 집단 문화적 위선에 빠지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키느라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 안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예수님에 대하여 율법을 어겼다고 한 바리새인의 위선적 분노가 없는지 살펴보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집단 문화적 위선에서 비롯한 잘못된 믿음은 아닌지 살펴보자. 아울러 교회의 제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찾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매여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임재아래 매임을 풀고 있는가?”



같이 읽으면 좋을 책

《츰스키처럼 생각하는 법》 노르망 바야르종 지음 / 강주현 옮김, 갈라파고스, 2010.

이 책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여론, 미디어, 정치, 광고 속에 숨어 있는 여론 조작에 대응하여 생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보여준다. 비슷한 책으로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엘든 테일러/이문영 옮김, RHK, 2012), <생각에 관한 생각>(대니얼 카너먼/이창식 옮김, 김영사, 2018)이 있다.

《생각이 내가 된다》 이영표 지음, 두란노, 2018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의 이 책은 ‘생각’을 ‘의지’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는 책이다. 얼핏 보면 의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사한 책으로 <생각의 힘>(김병원 지음, 프리뷰, 2013)이 있다.

책 읽어주는 부모 ❶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의 저자인 옥명호 작가는 어린 시절 선원이셨던 아버지와 함께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처럼 야근으로 피곤한 일상에, 집에 오더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원이셨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시간에도 쉬느라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위기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많지만, 아이들과는 함께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선원이라 일년에 며칠 정도만 집에 계셨던 아버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봤고, 그 순간 책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3년째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옥명호 작가는 그 시간을 ‘밤의 낭독 공동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씩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곧 부모와 아이가 일정 시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에 앉아서 함께 책을 보든지, 잠자리에 누워서 부모가 읽어주든지, 그 시간만큼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책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도 주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추억이 쌓이고 애착도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부모에게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아이들을 불러서 ‘자! 이제부터 책을 읽어줄게’라고 시작하면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멀리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의 내용을 듣고 부모 옆으로 올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의 내용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요. 그러면 그 책을 실감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등장인물의 나이와 캐릭터에 따라 목소리를 다르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조금 어색해도 그것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혼자서는 보기 힘든 긴 책도 드라마를 보듯이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읽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작은 이벤트를 해준다면 그 책 내용이 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 책을 나누어 읽어주고 <천로역정>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름으로 야근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일찍 퇴근한 부모들은 아이들과 예전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을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시간을 책 읽어주기로 함께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역소식 | 선교구제

제16기 서울경기시니어선교학교, 주님의교회 주최

3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니어 대상

주님의교회에서 올해 시니어선교학교를 개최한다. 시니어선교학교는 2007년부터 시작한 초교파 시니어선교운동인 시니어선교한국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선교학교이다. 시니어선교한국은 한국 교회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인 시니어들을 선교전문 인력으로 동원, 육성하고 총체적 선교사역의 활로를 개척,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선교, 국내 이주민 선교, 다음세대 선교, 북한 선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해외선교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시니어선교학교는 제16기 서울경기시니어선교학교로, 올해 3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오후 7시~9시 30분에 주님의교회에서 열린다. 매주 목요일 교육과정은 강의(19:00~20:30)와 소그룹

모임(20:50~21:3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 가운데에는 1박 2일 수련회와 국내 이주민선교현장 탐방이 포함되어 있다.

강사는 이시영 장로(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전 대표), 최철희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설은주 교수(살롬가정교육문화원 원장), 김영희 목사(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강동진 목사(보은예수마을), 허종학 장로(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임향자 목사(하늘꿈학교 교장), 최혜숙 선교사(이모작선교네트워크), 전철한 선교사(한국외국인선교회 대표), 느헤미야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훈련원장), 정송현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니어선교학교의 대상이 되는 시니어는 41세 이상의 모든 중장년을 포



함하며,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시니어, 교회에서 국내·해외 선교부서를 섬기는 시니어, 인생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크리스천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니어선교학교는 한 기수에 평균 40명 정도가 참여해왔으며, 지금까지 5~600명 정도의 시니어가 과정을 수

료하고 국내외 선교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다. 직전인 제15기 시니어선교학교는 방배동 백석교회에서 개최된 바 있다. 수강비는 15만원(수련회 참가비는 별도)이며, 교회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는 주님의교회 변춘석 안수집사(010-7722-6780), 또는 시니어선교한국 사무국(070-7656-4080, 070-7624-1215).

함글함글

사역소식 | 정신학원

정신여고, 사랑의 털모자 후원



정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사)섬김과 나눔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에 동참하여 사랑의 털모자를 전달하고 기증식을 가졌다. 정신학원에서는 전년까지 목도리를 만들었으나, 이번에는 아

프리카 신생아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해줄 귀한 털모자들을 만들어 기증했다.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짬을 내어 털모자를 한올 한올 떠온 그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다. 함글함글

사역소식 | 주방봉사

국수헌금, 갈수록 줄어

주님의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아침 7:30부터 1:30까지 국수를 제공하고 있다. 질 좋은 황태머리, 다시마, 대파, 무, 멸치 등으로 새벽부터 우린 국물에 담은 따뜻한 국수가 매주 약 3천 그릇 제공되고 있다.

이 국수값을 따로 받는 대신, 식당 입구에 헌금함을 놓아두고, 헌금된 금액은 구제복지위원회 구제부로 직접 배당하여 불우이웃돕기 등 구제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수 값 대신 헌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국수를 제공하던 초창기인 임영수 목사 재임시부

터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국수헌금이 날로 줄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다. 평소 30여 만 원 정도였던 국수헌금이 최근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계수되고 있다고 한다. 맛있는 국수와 함께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담는 기회, 다시 관심을 기울여 볼 때다.

함글함글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기도 용어 편 8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고(요 1:12),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6:23)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끝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지금 예배하고 있사오니(○)

기도를 마치는 즈음에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심중팔구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이전에 이미 입례송, 묵상기도, 개회찬송, 성시교육, 신앙고백, 회중찬송 등의 여러 순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기도시간이 예배의 ‘처음 시간’이라면 기도 이전에 했던 다른 순서들은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모순일 수 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려면 “지금 예배하고 있사오니”라는 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커버스토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문의 인터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하여, <함글함글> 421호 편집을 하고 있는 21일까지 전 세계 30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전체 감염자는 76,781명, 사망 2,247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월 20일 한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204명이 감염자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 지역에서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품절 사태에 이르고,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자영업체에서는 손님이 줄어 아우성입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 전염병 방역과 치료의 전선에서 땀 흘리는 주님의교회 김태형 집사(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에게 주님의교회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함글함글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중국 우한시에서 발원한 이번 코로나19 감염증도 전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대중적 공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의 한 명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시지요?

네^^. 병원에서도 만나는 분들마다 제 건강을 걱정해주십니다. 제가 전공한 감염내과는 본디 평상시에도 눈에 띄지 않게 HIV 등 감염병 진료 뿐 아니라 병원 감염관리, 교육, 연구 등 앞장서서 떠맡고 일하는 과인데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감염병 유행 때문에 전쟁터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의 체력 소진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어쨌다 보니 저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와 이번 2019년 코로나19를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이 질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요? 또한 언제 구체적으로 이 질환의 심각성이 병원 전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했는지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우한이란 곳이 우리가 사는 서울만큼 변화한 대도시이고 기후나 조건이 우리와 비슷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에볼라와 같은 무서운 풍토병 바이러스가 한 지역의 경계를 잘 넘지 못하는 이유는 바이러스는 선호하는 숙주 동물(종숙주)과 매개동물(모기 등)과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생존이 가능하여, 쉽게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숙주 동물이나 매개동물이 살수 있는 기후와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토착화되기 어렵죠. 그러나 반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한이라는 매우 서울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도 어느 지역이

나 어느 인종에게 차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대유행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사스만큼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독감보다는 훨씬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의 명칭을 세계적인 바이러스에게는 붙이지 않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2월에 이르러서는 국내 모든 병원이 이 문제로 병원장 아래 매일 위기대응 상황입니다.

한국에 첫 감염자가 발생한 1월 20일 무렵부터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경계와 방역의 단계를 높여 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 3차 감염, 이제는 4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과잉인 상태로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에게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정보원을 권해 주신다면 어디일까요?

바이러스 감염은 과학적인 사실에 불과한 현상인데 보건당국과 언론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이나 정치에 대한 평소의 신뢰와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각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직통안내번호 1339를 중심으로 사실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학술단체(대한감염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한 것이 이웃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



서면 인터뷰를 한 날인 2월 16일, KBC 9시 뉴스에 출연 대담 중인 김태형 집사(KBS뉴스 9 동영상 캡처). 김태형 집사는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 대한항균요법학회 재무이사, 대한에이즈학회 기획이사, 대한감염관리학회 KONIS 운영위원,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분과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이며, 2015 메르스 대응 유공자로 2016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방위 훈련과도 같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료는 일손과 시설 등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의 방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도 됩니다. 이번에도 2015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질서 있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람들이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소식들, 각종 음모론, 어느 의사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카카오톡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보다는 공식적인 보도자료와 전문학술단체의 과학적인 의견을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정과 회사에서의 감염 예방에 대한 정보는 많은 매체를 통해 충분히 알려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교인이 집중되는 주일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미 교단 총회에서는 교회에서의 대처방법을 정리해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 상황을 잘 아시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만한 가장 좋은 예방법을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일부국가 내에서 이미 지역사회

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의심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모든 사회 활동을 마비시켜야 할 만큼 그 위험이 크지는 않고 불행 중 다행으로 감염에 걸리더라도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을 일으키고 회복되기 때문에 손씻기와 기침 예절(기침을 할 때 수건이나 소매로 입을 막는 것과 기침하는 사람이 마스크 쓰는 행위)만 지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원지 국가에서 질병이 좀더 통제될 때까지는 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사는 조금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동반질환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좀더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전공자 입장에서 마스크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만 런닝 등 일반 외출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도 손씻기가 마스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감염성 미생물들은 소매보다는 손가락에 가장 많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 5면으로

커버스토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기독교

신종 바이러스와 뿌리 깊은 죄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새롭게 발생한 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낮익은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종이 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지 않고 수시로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에서는 감염을 경고하고, 도서관은 휴관을 하고 학교들은 휴교 또는 개학이나 개강을 연기하였다. 확진자가 들렸던 식당이나 백화점 등은 며칠간 문을 닫고 소독을 해야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신종 감염병이라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정부와 사회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신종이란 것에 예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종은 새롭기에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안

개와 같이 분명해 보이지 않아 두려운 마음이 들게도 한다. 가끔 명품 가게에서 신제품이 발표되면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는 것을 보게 된다. 신제품의 기능과 모습이 어떨지 다 알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종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신용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만큼 신종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존재다. 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는 별로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악들을 말하였는데 교만, 허영,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등이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죄악을 발견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들은 사실 오래되고 익숙한 죄들이다. 이러한 죄들은 인간을 즉각적으로 죽일 수는 없어도 구체적인 죄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근



도 허영의 얼굴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장기 화될 우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방역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신종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처럼, 오래되어 익숙하지만 치명적인 죄들에 대해서도 조심한다면 하나님에 주인 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이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경수 목사**

우리는 신종 죄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갖지 않는다
교만, 허영,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과 같은 근원적인 죄악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방역을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갖지 않고 겁을 내지도 않는다. 우리가 쉽게 걸리는 감기는 약을 먹든 먹지 않든 일주일만 잘 쉬면 낫는 병이라 생각하고, 감기 걸린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기를 무시하고 그냥 두었다가는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신종 죄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우리

원적인 죄악들이다. 허영이란 죄를 예로 들어보겠다. 허영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죄이다. 어디서나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죄악이다.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은 허영의 죄에 깊이 빠져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보기 좋게 꾸며 SNS에 올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

> 4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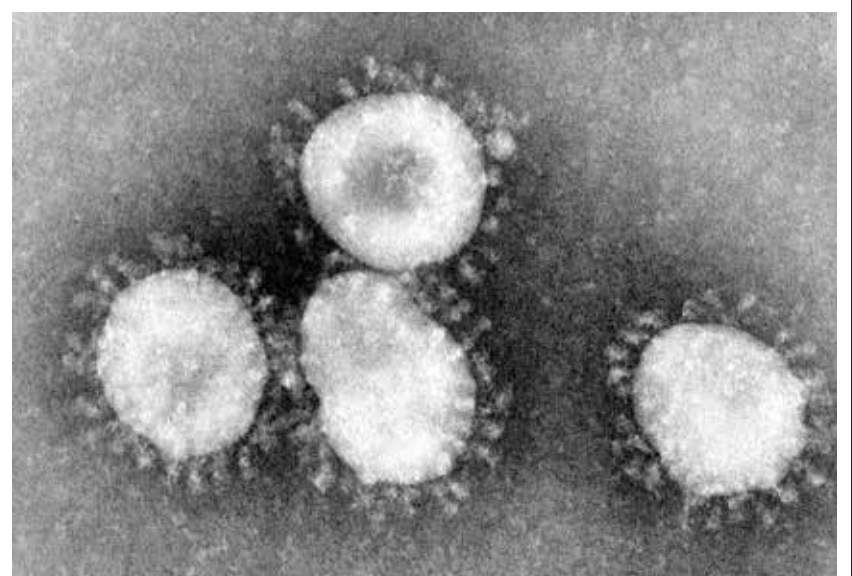
집사님은 주님의교회 출석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어떤 동기로 출석하시게 되었는데, 혹시 평소에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3대째 모태 교인이고 함께 신앙을 고민했던 동료 가정과 함께 2004년부터 출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책 한 권 읽고 주님의교회와 그 정신을 흡모하게 되었거든요. 주로 쉬는 날 없이 병원 일을 하고 있어서 주일에배겨우 참석하는 아주 무익한 집사입니다만,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자랑하자면요, 제가 존경하는 이용수 장로님께서 시키셔서 영광스럽게도 유소년 축구팀 팀닥터를 몇 년 했었습니다. 주로 아이들 물 떠주고 무릎까진데 소독해주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교회 구성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일반적인 보

도나 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쭙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보나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덧붙여 주셔도 됩니다!

신앙과 과학은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라고 저도 믿고 살지만 과학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도움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예수 믿는 집사님 의사 찾지 않아도 세상의 의사들을 통해서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질병이나 전염병의 창궐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도 인류에게 차별없이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코로나바이러스. 태양의 둘레에서 빛나는 코로나를 닮았다고 하여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1면에 수록된 사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작한 2019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레이션이다.

구원과 치유를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가 서울뿐 아니라 저 우한시까지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인터뷰

뷰에 응해주신 김태형 집사에게 감사하며, 그이의 말처럼 이 재난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함글함글

사역보고 | 의료선교부

애플망고, 베트남 나짱



지난해 12월 26일 ~ 30일, 주님의 교회 의료선교부에서 베트남 나짱(Nha Trang)을 방문했습니다. 나짱은 카인호아(Khánh Hòa)성의 중심도시로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캄란(Cam Ranh)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담석 제거 수술, 치과 진료, 내시경 등 70명을 진료하였고, 외과계, 치과계 세미나를 현지 병원 의료진과 함께 하면서 학술교류도 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토요일에는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산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20명 정도 왕진도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교회 성도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이진원 집사님과 박서연 목사님 가정은 베트남에 오신 지 13년이 됩니다. 그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호치민에 공부하러 온 가난한 신학도들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 호아(Hoa)와 타오(Tao) 목사님이 고향에 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원 집사님은 120일 전부터 호치민에서 버스로 9시간 되는 거리를 몇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환자를 상담해서 파악하고 버스를 빌려서 이분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에서 시니어로서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주님의교회 지체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비뇨기과(서준규), 재활의학과(박준명), 간담체외과(박일영), 소화기내과(최창환), 치과보철과(이현식, 변춘석) 전문의들

이 참석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이현규), 영상의학과(김정은) 부부가 베트남 의대생 4명과 함께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현지인 의사 2명(Dr. Minh 과 Dr. Thi)이 가세해서 환상적인 진료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사실은 현지인 의사 두 분이 진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아침 박서연 목사님의 인도하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법조인 출신인 황용환 장로님은 진료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진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숙소와 병원이 그 유명한 캄란만 해변가에 있었지만, 모래사장도 밟아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식 연유커피 카페쓰아다(Caphe Sua Da)를 맛보며 베트남 의대생 4명의 믿음의 고백과 꿈을 들을 수 있었고, 베트남 교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리앙, 카사바(cassava)의 산지 캄덕(Cam Duk)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석양 길에는 애플망고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길 바라며..... 올해(2020년)에는 소수민족 진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항에서 가까운 캄란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를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정 날짜는 12월 16(수)~19(토)입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변춘석 안수집사 / 의료선교부

선교사역보고 | 베트남 선교사

의료선교를 마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지난 1년 동안의 기도와 수고가 열매로 이루어질 의료 선교의 현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우리는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환자들을 찾아 어디든 갔다. 환자들과 병에 대해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주었다. 한국에서 의사들이 와서 진료해 준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현지인들과의 간격을 좁히는 교제의 기회가 되었고, 현지 사역자인 타오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26일 8시 30분부터 환자들은 병원의 뜰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사를 위해 금식하고 온 환자들은 날씨가 추워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다. 현지 의사 티와 민과의 미팅이 9시 넘어 이루어지면서 환자들은 하나둘 흩어지려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중에 늘 베트남인들에게 차별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인 소수민족들이 보였다. 여기서도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따라가 잘 통하지 않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돌렸다.

베트남 사역자들, 이진원 집사와 나. 70명의 환자를 통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반년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기도가 부족한가 싶을 만큼 힘이 들었다. 주님은 내게 찢긴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 전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물으셨다. 찢긴 빵과 부어진 포도주는 늘 내게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나는 의료진이 아니기에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리자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몹시 추웠고 힘들어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잘 참아 주었다.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난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을까? 간절함이 덜했던 것

은 아닐까?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려 했는데..... 내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관심이 필요하고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할 텐데..... 늘 결핍을 느끼기에 작은 관심에도 목말라 하는 그들. 의료선교팀은 이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듯 너무나 친절하게 사랑을 담아 이들을 감싸 안으며 진료에 임하셨고 칸호아 병원의 VIP로 대해 주셨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는 진료는 의료팀의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였다. 웃으시며 끝까지 세세하게 살펴주신 의료팀, 그저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쭈신다는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주며 사랑을 전해 주신 의료팀, 그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서 고마워하던 그들의 눈동자가 생각난다. 사랑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의료팀.

소수민족교회 방문과 2018년 진료했던 두 분을 찾아 뵈었다. 걸을 수 없던 분이 걷게 되었고 늘 잇몸에 고름이 차있던 할머니께서 많이 회복되신 것도 보았다. 동역자인 타오목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두 감사할 일이었다 선교 팀이 떠난 후 타오목사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어서 소수민족교회로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다. 감기가 심히 들어 앓고 있어서 코로나19는 아닌가 걱정했는데 나았다고 연락이 왔다 감사했다.

의료선교를 마치며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저들과 같은 마음이었을까? 그들과 동등했을까? 혹 내가 저들과 다르게 행동했던 건 아닐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는 아니었을까? 혹 상처를 받은 자는 없었을까 생각해 본다.

함께해주셨던 주님의교회 의료선교팀과 하노이 이현규 선교사팀에게 감사드리며 기도로 함께 해주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서연 목사 / 베트남 선교사

목회칼럼

기도와 응답

“만세, 글래미스의 영주, 만세, 코도의 영주, 만세, 장차 왕이 되실 분!”(맥베스 1막 3장)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던 충직하고 정의로운 맥베스 장군은 인적 없는 들판에서 세 명의 마녀를 만난다.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세 가지 예언을 들려준다. <글래미스의 영주, 코도의 영주, 장차 왕이 되실 분> 그는 이미 글래미스의 영주였으니, 첫째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둘째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었는데, 덩컨 왕은 이미 맥베스에게 코도 영주의 작위를 하사했으나, 아직 전령이 맥베스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차 왕이 되실 분!” 이는 충직한 맥베스가 감히 입에 담기 힘든 망측한 말이었다.

그러나 왕의 전령이 맥베스 앞에 뛰어들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던 “코도의 영주”가 사실임이 드러나는 순간, 덩컨 왕의 충신 맥베스는 환희에 차 외친다. “두 진실이 밝혀졌다, 왕권을 주제로 한 웅대한 연극의 상서로운 서막으로.” 그는 미끼를 문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들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보낸 “아테(ate),” 곧 “미망(迷妄)”이라 부르던 것이 셰익스피어에게는 “욕망”의 문제로 부

각한다.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헛소리로 이루어진 마녀들의 사소한 미끼가 맥베스의 무의식 아래 숨어있던 욕망과 공명하여 거대한 미망이 된다. 맥베스의 고결한 충성, 정직, 정의가 한순간에 허무를 향해 거꾸러진다.

기도와 응답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신학대학원 첫 영성훈련에서 영성신학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던 것, 내가 상상하기 싫어했던 것, 내가 정말 피하고 싶던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 기도 응답을 찾아 헤맬 필요 없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다.

응답은, 역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이어서 하는지 알려준다. 기도란, 자기 비움이다. 나를 비우고, 또 비워서, 내 안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질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인간은 아무도 자아의 고결함을 자신할 수 없다. 우리네 신앙 여정 도처에 “코도의 영주”가 널려 있다. 교육, 직업, 성공, 부, 건강, 안전.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구하고, 또 어떤 이는 고상한 말 아래 은근하게 갈망하며 두 손을 모은다. 그러나, 헤어질 실오라기로 위태롭게 묶어놓은 욕망이 신성사문자로 장식한 사소한 성취와 우연히 만나는 순간, 신앙은 한순간에 허망한 미망으로 전락한다. 기도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하고, 응답이 하나님을 무력하게 한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된다. 자기를 비우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가신 예수를 기억한다. 그 길 불쫓으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의 텅 빈 충만으로 빛나길 기원한다.

손경민 목사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기다리던 무언가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그럴듯한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것도 응답이 아니다. 내가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던 것,
내가 상상하기 싫어했던 것, 내가 정말 피하고 싶던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 기도 응답을 찾아 헤맬 필요 없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다.
기도란, 자기 비움이다. 나를 비우고, 또 비워서,
내 안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를 떠올린다. 기도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은 확실하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도 함께 말씀해주셨다. 정확한 자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요지는 이러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기다리던 무언가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그럴듯한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것도 응답이 아니다. 내가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

에 흐르도록 손아귀의 힘을 푸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욕망과 세속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간다.

긴급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코로나19 예방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배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봉사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섬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회중 찬양 때에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합니다.
4. 2주 내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들이나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예배 중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pcl주님의교회)
5. 각종 모임 및 식당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2020년 2월 23일
주님의교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레미야 33: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성도 여러분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교회는 모든 생명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온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 주중과 주일에 계획되어 있는 예배는 차분한 마음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 교회에 오실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자들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섬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서로 인사 하실 때 악수보다 목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주 내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들이나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주님의교회 실시간 예배 중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 pcl주님의교회)
- 공예배 외 각종 모임과 식당 운영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 어린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교회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과 위생에 신경 쓰고 있으며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중 현직 의료인들도 마음을 다해 도움 예정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애쓰는 많은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21일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김화수

주님의교회 유유청청 교사 행동지침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주님의교회 선생님들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지혜롭게 대처하는 유유청청 되기를 바랍니다.

- 모든 교사는 무증상의 경우라도 교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옵니다.
- 학생을 맞이하기 전에 손을 세척합니다.
- 학생이 예배실에 입장할 때 우선적으로 손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 신체 접촉을 최대한 삼가고, 가급적이면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간의 신체 접촉도 삼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예배 중 학생에게서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귀가 조치하도록 합니다.
- 간식의 경우 개별 포장된 간식으로 준비하고, 불가피하게 손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은 후에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최근 14일 내 중국에 다녀온 친구들이 있다면, 담당 교역자에게 반드시 알립니다.



시니어들이여, 열방에 예수 빛을!
하나님 앞에 은퇴란 없습니다.

- 일시 | 2020. 3. 26(목) ~ 6.4(목) 11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1박 2일 수련회, 국내이주민선교 현장탐방 포함)
- 장소 | 주님의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6(정신여고내)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출구, 도보 2분
- 문의 | 주님의교회 변춘석 안수집사(010-7722-6780)
시니어선교한국 사무국(070-7656-4080, 070-7624-1215)



알립니다

1. 늘푸른대학 제12기 등록 및 개강 연기

늘푸른대학 등록접수와 개강을 연기합니다

문의 : 홍운식 안수집사(010.8314.0597)

2. 말씀과 함께하는 40일(전교인 성경통독)

기간 : 사순절(2/26~4/11, 주일을 뺀 40일)



정정보도

함줄함울 420호 5면 2020 제직부서 편성표에서 “교육위원회 간사장”이 편집 과정에서 착오로 “김유호”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이용수”로 정정합니다. 관계된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함줄함울

알립니다

2020년 늘푸른대학 제12기 개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합니다.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